


무궁애학원 2018년 2/4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록

	담 당	국 장	원 장
결 재	유기용	유기용	

실시일자	2018년 6월 13일(수)	시 간	12:00 ~ 14:00
참 석 자 (총 8명)	■ 운영위원(5명) 이선우 위원장, 정해도 위 박민현 위 원, 김범수 위 원 이상경 위 원 ■ 직원(3명) 유기용, 이진경, 강말출	전체진행	이선우 위원장
		기 록	유기용 사무국장
		장 소	평사리가는길
제 목	무궁애학원 2018년 2/4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내용	<p>○ 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00 성원보고 ■ 12:05 전차회의록 보고 ■ 12:10 무궁애학원 일반현황 보고 ■ 12:20 안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인 지원 - 단기사회사업 - 기타사항 ■ 14:00 폐회선언 <p>○ 성원보고</p> <p>- 무궁애학원 운영위원 6명 중 오혜정 위원은 공무(지방선거)로 인하여 불참하였으며, 운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과반으로 성원이 구성되었음을 확인하고 회의를 개최하다(이선우 위원장)</p> <p>○ 전차회의록 보고</p> <p>- 유기용 사무국장이 2018년 3월 2일(금)에 개최된 2018년 1/4분기 회의에 대하여 보고하다.</p>		

○ 무궁애학원 일반현황 안내

- 유기용 사무국장이 무궁애학원 일반현황에 대하여 설명하다.
- 거주인 현황(정원 90명, 현원 88명)
 - 거주인 3명 실별 이동보고
 - 거주인 1명 장애등급조정보고(지적장애 3급→ 지적장애 2급)
- 직원(정원 52명, 현원 50명) : 육아휴직 직원 2명(대체인력 2명)

* 질의응답내용

- 이선우 위원장 : 거주인의 거주지 변동이유는 무엇인가요?
- 박민현 원장 : 지역거주실에서 생활실로 이동한 거주인 1명과 생활실에서 지역거주실로 이동한 거주인 2명이 있으며, 본인이 거주지 이동을 희망하였고 심사절차를 통하여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 이선우 위원장 : 본인의 의사로 옮겼군요. 지금처럼 전체 거주인이 거주지 선택의 자유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박민현 원장 : 지역거주실에서 생활실로 이동한 거주인의 경우 개인적으로 다양한 상황과 특성이 있었는데 옮기고 나서 안정감을 찾고 잘 적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 안전사항

- 강말출 생활실장이 거주인 지원에 대해 설명하다.
- 해피툼문화센터
 - : 생활실 거주인 낮 활동, 6개 프로그램 운영, 실인원 25명
- 체험홈
 - : 거주인(여성, 3명) 황전아파트 104동 102호, 3개월 단기체험

* 질의응답내용

- 박민현 원장 : 체험홈 4곳 중 1곳은 원내의 중증 거주인이 3개월 단위로 살고 다시 돌아오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주인의 이동에 따라 직원의 지원이 증가하여 인력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 이선우 위원장 : 규칙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구할 수는 없나요?
- 박민현 원장 : 규칙적인 자원봉사자를 연계하기는 어려우며 사

회복무요원이 있지만 안전상 원내에서 복무하기를 양산시청에서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해도 위원 : 그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본인의 일이 있는데 평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 박민현 원장 : 원에서 체험홈까지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선우 위원장 : 그러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인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별도의 추가 지원이 없는 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원방식은 없나요?

- 박민현 원장 : 현재는 없으며 시설 거주인은 현재 지원이 되지 않지만 활동보조지원제도를 지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선우 위원장 : 시설 외부에서 거주하는 거주인에게 활동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완화해야 합니다. 낮 시간에만 허용하거나 법정시간의 50% 정도 제공하는 등, 발달장애인이 바로 탈시설을 하는 것보다 혼합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선우 위원장 : 해피롬 문화센터의 경우 한덕연 선생의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자'라는 말처럼 앞으로 장애인복지의 큰 과제 중에 하나는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입니다. 보호자 또는 지원교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무궁애학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박민현 원장 : 지금의 의사소통방식은 언어나 글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거주인을 위해 개별에 맞는 그림도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진경 지역거주실장이 단기사회사업에 대해 설명하다.

· 참여학생 : 경남 및 부산권역 사회복지학과 학생 7명

· 연계 거주인 : 총 3명

- 월하우스 1동 1명, 월하우스 2동 1명, 지역거주실 1명

* 질의응답내용

- 이선우 위원장 : 참여하는 학생 중 2학년도 있나요?

- 이진경 실장 : 복수전공하는 학생이 있으며 사회복지현장실습과는 상관없이 본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입니다.

- 김범수 위원 : 학생들이 많이 있네요.

- 박민현 원장 : 과업달성이 중점인가요?

- 이진경 실장 : 과업이 달성되면 좋겠지만 과정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 이선우 위원장 :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과정이 중요하며 이것을 통해 사회사업에 대해 조금은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유기용 사무국장이 기타안건에 대해 설명하다.

· 2018 일본 장애인복지 연수참여

- 참가자 : 박민현 원장의 중간관리자, 총 5명

- 견학기관 : 사회복지법인 손을 잡는 육성회(일본 나라현)

· 직원 사무업무 개선을 위한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 2018년 사회복지현장실습

: 1학기 1명(평일야간, 토요일), 하계방학(7월중 실시예정, 4명)

* 질의응답내용

- 이선우 위원장 :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시스템에서 다양한 주거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계속 정부에 요구를 해야 합니다. 3교대 정도면 인력문제가 해결되나요?

- 박민현 원장 : 인력이 늘어나면 업무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거주시설이 복합적인 서비스를 하면 실제적으로 인력의 문제는 증가합니다.

- 이선우 위원장 : 거주시설이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전문적인 서비스는 외부의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방식으로 분화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례처럼 50인실 호텔식으로 운영되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산문제가 있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을 갖고 시간을 두고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해도 위원 : 양산 범어의 경우 토지가 있다고 가정하면 10억이면 5층 빌라 2동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원룸보다는 아파트형 빌라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 이선우 위원장 : 조금 작게 만들어서 가는 것은 어떨까요?

- 이진경 위원 : 거주인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선우 위원장 : 거주시설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새로운 거주형태로 장애인의 선택권에 따라 이용하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 박민현 위원 : 지난 4월에 국민참여예산사업에 우리 원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센터를 확대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선정이 되어 이번주 토요일에 제안사업을 소개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센터의 경우 3개월이 되었는데 직원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고 지역에 있다 보니 이웃가게와 이웃주민 등과 거주인이 편하게 보고 마주치고 있습니다.

- 이선우 위원장 :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의 원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거주실 사무실에는 직원이 얼마나 근무하나요?

- 이진경 실장 : 총 근무자는 9명이나 대부분 담당 가정을 지원하고 있어서 상시직원은 많지 않습니다.

- 김범수 위원 : 저도 가끔 내려가는데 좋던데요.

- 이선우 위원장 : 무궁애학원의 이러한 다양한 거주형태에 대한 시도와 노력들이 유의미한 일입니다.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하여 새로운 모델발굴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선우 위원장이 추가질의에 대한 의견을 묻자 추가질의가 없었고 심의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자 정해도 위원이 동의하고 이상경 위원이 제청하여 심의사항이 통과되다.

○ 이선우 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장애인거주시설 무궁애학원